

동물 의료 현장에 있어서의 설명과 동의와 세컨드 의견

鷲巢月美(일본 수의생명과학대학 수의학부 조교수)

* 출처 / 본 원고는 일본수의사회지 2006년 9월호에 게재된 것입니다.

1. 도입

설명과 동의와 세컨드 의견, 어느쪽이나 최근 잘 듣는 말이다. 동물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올바르게 이해되어 실행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조금 의문이다. 재차 생각해 보고 싶다.

2. 설명과 동의

설명과 동의의 역어로서 “설명과 동의” 혹은 “납득 진료” 등이 태어났지만, 결국은 “설명과 동의” 인 채 사용되고 있는 것이 많다. 설명과 동의는 informed, 즉, 정보가 주어져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환자(가족)에 의한 consent, 즉, 동의여, 주체는 어디까지나 환자(가족) 측에 놓여져 있다. 그렇지만, 설명과 동의가 “의사 혹은 수의사에 의한 설명”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닐까.

설명과 동의는 수의사로부터의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고, 가족 측으로부터도 수의사에 대해서 다양한 사정이나 생각을 전해 최종적으로 합의에 도달한 다음, 가족으로부터의 치료에 대한 의뢰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프로세스는, 우선 수의사가 진단명 혹은 현시점에서의 문제점 및 그 치료에 관한 정보를 가족에게 전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가족으로부터 여러가지 질문을 받게되고 가족은 자신들의 형편(시간적, 경제적 문제, 일, 가정, 인생관, etc)을 수의사에게 설명한다.

이 시점에서, 수의사와 가족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합의를 목표로 하고, 즉, 최종적으

로는 동물에 있어서,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되도록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게 된다.

설명과 동의를 위한 수의사의 설명은,

- 단지 승낙을 얻기 위한 것만은 아니며 가족이 스스로에게 있어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공평하고 공정하게, 자신이 자랑으로 여기는 것에 치우치지 않아야 함.
- 주관은 가능한 한 넣지 말아야 함.
- 트러블을 피하기 위한 것만은 아님(결과적으로는 그랬다고 해도)

여기서 조금 구체적인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

증례는 개, 7세, 피임이 끝난 암컷이며, 아래턱 및 서경부 림프절 종창, 건강 식욕 저하, 열도 있는 것 같다고 내원함.

우선, 림프절이 종창 하고 있는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검사의 결과, 임파종이라고 진단되었다고 가정하면, 수의사는 가족에게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임파종은 도대체 어떠한 병인가, 예후,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았던 경우의 경과나 예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 체표의 림프절이 되는 오는 타입의 임파종은 항암제에 매우 잘 반응하므로, 항암제에 의한 치료가 가장 일반적임
- 항암제를 투여했을 경우 치료의 결과, 즉, 어느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치료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 어느 정도의 연명을 기대할 수 있는지
- 치료 중 어떠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 정도나 빈도, 생명의 위험성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
- 치료의 스케줄과 비용
- 항암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치료의 선택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은 수의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질문에 답하면서 진행시켜 나간다.

여기까지가 “가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즉, 올바른 진단에 근거한 병의 설명과 치료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이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며, 이것에 대해서, 가족은 시간적인 일, 경제적 일, 간호 능력 등등, 가족 측의 형편을 설명하게 된다.

임파종의 경우, 치료의 선택사항으로서

-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
- 스테로이드만의 투여를 실시하는 경우
- 대증요법만을 실시하는 경우
- 대체 의료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 치료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안락사하는 경우 등을 들 수가 있다.

병의 진행 상황이나 동물 상태에 의해 선택의 범위는 다르지만, 치료 가능한 동물의 경우, 수의사로서는 항암제를 투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방법을 선택 할까는 가족이 결정하는 것이며, 우리 수의사는 “항암제를 투여해야 합니다”라고만은 할 수 없다. 각각의 가족은 동물에 있어서, 그리고 가족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 그것이 동물 애호의 관점으로부터 용서되는 것이라면, 수의사들은 동물 의료 제공자로서 최후까지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물 의료에 있어서의 설명과 동의이며, 설명과 동의가, 모든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의문이나 설명 부족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동물이 죽었을 때, 가족은 병원 관계자를 원망하거나 자신을 탓하게 된다.

사람의 의료의 경우에는 “고지”, 즉, 환자에게 암인 것을 직접 전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지만, 동물 의료의 경우에는, 가족에게 검사 결과 및 진단을 전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가족과 수의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한 환자를 대상으로 죽음의 순간에 대해 연구한 엘리자베스·큐브라·로스 여사는, 인간은 죽기 전에, 부정, 분노, 갈등, 거래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고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최종 단계, 즉 수용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이것은 죽는 본인만이 아니고, 가족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본인에 있어서도 가족에 있어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동물의 경우, 본인의 기분의 변화는 불명하지만, 적어도 가족은 이것과 거의 같은 단계를 거쳐 동물의 죽음을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가족에게 있어서, 어쩌서 동물의 상태가 나쁜 것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매우 괴로운 것이다. 검사의 결과, 죽음에 이르는 병인 것이나 임종이 가깝다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가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3. 세컨드 의견

동물 병원에는, 세컨드 의견을 요구하는 사람, 타원에서의 세컨드 의견을 희망하는 사람의 양쪽 모두가 내릴 한다. 본래의 세컨드 의견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수의사들이 어떻게 대응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세컨드 의견은, 일본어로 번역하면 “제2의 의견”이 되지만, 별로 일반적이지 않고, 설명과 동의와 같게, 그대로 가타카나 표기로 사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진단이나 치료에 대해 주치의(혹은 현재 진찰을 받고 있는 의사) 이외의 의사의 의견을 세컨드 의견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래, 주치의의 진단이나 치료 방침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받는 치료에 대해서, 다른 전문의의 의견도 들어 보고 싶은, 참고로 하고 싶다고 할 때를 위해서 세컨드 의견은 존재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세컨드 의견을 요구하는 환자나 의사 모두 다소의 어색함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통상, 세컨드 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주치의에게 그 사정을 전하면 소견서와 그때까지 받은 여러 가지의 검사에 관한 정보를 준비해 준다. 모든 자료를 지참했는데, 세컨드 의견을 들으러 간 병원에서 전의 병원과 같은 검사를 다시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통상 없을 것이다.

세컨드 의견은, 복수의 의사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으로, 진단이나 치료법으로 잘못이 없는가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다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의사의 선택, 혹은 주치사와 세컨드 의견이 구할 수 있던 의사 쌍방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등의 이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동물 의료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의료에 대해서는, 의사는 세컨드 의견 진찰에 협력하는 것이 법률로 의무 지워지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세컨드 의견이 보급되기 어려운 환경이며, 그 주된 원인은 의사의 측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즉, 의사의 프라이드, 자신의 의료에 대한 자신감과 그것이 뒤집어질 가능성에 대한 공포심, 동업자인 다른 의사에 대한 직업적 질투심, 등에 의해 환자가 “세컨드 의견을 요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좋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환자도 “소견서를 부탁하기 어렵다”, “검사 결과 등의 자료는 빌릴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등, 입장이나 관계적으로도 약자이며, 심신 모두 완전히 지쳐 버리고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은 정말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찌할 바를 몰라 버린다.

그런데, 동물 의료에 있어서의 세컨드 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일까.

동물 의료에 대해서는, 본래의 의미로의 세컨드 의견이 요구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며, 세컨드 의견이 요구되어 지는 경우는

- 주치의 수의사(단골의 수의사)에서는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
- 주치의 수의사에서는 진단 혹은 치료에 필요한 시설·설비가 불충분한 경우
- 주치의 수의사의 진단에 근거한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없는 경우
- 주치의 수의사(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물 의료에 대해서도, 본래의 세컨드 의견은 아니지만, 벌써 다른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동물이 내원하는 일도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니다.

또, 반대로 세컨드 의견을 요구하고 싶기 때문에 소견소와 지금까지의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빌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신청을 받기도 할 것이다.

동물 의료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다른 동물병원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이다. 전원 해 온 환자에 대해서, 전에 통원하고 있던 병원의 진단이나 치료에 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말하거나 환자의 분노를 조장 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과 동물이 보다 좋게 살기 위해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동물 의료(명확한 설명과 동의 확인, 세컨드 의견의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 동물 의료 체제의 정비

- 동물 병원간의 협조와 제휴
- 각각의 역할 분담을 명확화
- 2차 진료, 전문 진료를 담당하는 동물 병원의 정비

■ 동물 의료의 표준화

- 임상 수의사 교육의 충실
- 수의사 및, 동물 병원간의 의료 지식/기술의 표준화

4. 결론

향후, 동물 의료에 요구되는 것은 더욱 더 다양화되어, 보다 원활한 수의사와 수의사 간의 또는 동물병원과 동물병원 간의 의사소통 및 제휴가 필요하게 된다.

보다 좋은 동물 의료 제공하기 위해서,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